

#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Experience on Family Conflict and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 A Focus on Low-Income Households

중앙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석사과정 김효선\*\*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박정윤\*\*\*

Dept. of Child and Youth Studies, Chung Ang Univ.  
Master's course Kim, Hyosun  
Dept. of Psychology, Chung Ang Univ.  
Professor Park, Jeungyun

##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선행연구 고찰	V. 결론 및 논의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초록〉

본 연구는 저소득 가구의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이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사회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 가구 대한 지원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10차에서 14차에 걸친 5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총 803명의 저소득가구의 가구주가 응답한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고, 사회경제적 박탈경험이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저소득가구의 가족갈등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미약한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가족관계만족도의 변화율은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박탈을 경험한 가족의 경우, 미경험 가구보다 가족갈등의 초기치가 높았고 변화율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가족관계만족도는 미경험 가구보다 유경험 가구의 초기치가 낮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저소득 가구가 사회경제적 박탈을 경험하게 되면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고 가족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가족갈등이 높고 가족관계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과 사회보장적 지원을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가족이 갈등을 스스로 조절하고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저소득 가구, 가족갈등, 가족관계만족도,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pare basic data to set the support direction for low-income households in a socioeconomic crisis situation.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experience on the longitudinal changes in family conflict and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low-income households. Using five-year data from the 10th to 14th sessions of the Korean Welfare Panel, we examined the longitudinal changes in family conflict and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the effect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experience from the responses of 803 low-income households. We found that the family conflict of low-income households

\*이 논문은 2019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주저자: 김효선(joliehs12@naver.com) <https://orcid.org/0000-0002-4515-1537>

\*\*\*교신저자: 박정윤(pjy4838@cau.ac.kr) <http://orcid.org/0000-0002-0755-9697>

decreased to a weak level with the change of time, and the rate of change in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was not meaningful. In the case of families who experienced early socioeconomic deprivation, their initial value of family conflict was higher than that of inexperienced households, and the rate of change was not signific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when low-income households experience socioeconomic deprivation, they feel psychological pressure and an increase in family anxiety, resulting in high family conflict and low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On the basis of the study results, we recommend extending economic and social assistance to low-income households in the current socioeconomic crisis. The state is also encouraged to help families manage conflicts on their own and resolve problems.

**Key words:** low-income household, family conflict,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socioeconomic deprivation experience

## I. 서론

가족은 개인의 발달과 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중 가족의 경제적 기능은 가족의 생활과 직결되어 생계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류중훈, 2004).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저소득 가구의 경우 일반 가구에 비해 경제적 기능 수행의 어려움이 크다. 실제로 송혜림 외(2009)의 연구에서는 금융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과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고 2021년 현재, 중국 우한에서 2019년 12월에 시작하여 전 세계로 퍼진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COVID-19)확산으로 또다시 사회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해외수출이 막히고 민간 소비가 줄어들면서 한국의 경제 상황은 또다시 위기에 부딪혔다(서울신문, 2020).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가구의 소득 감소율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크게 나타나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가구일수록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가 더 크다(김영란, 2020). 과거 외환위기로 인하여 가족의 소득이 줄고 부채가 증가하면서 가족이 직면하게 된 스트레스는 알코올 등의 약물중독 문제와 가정 폭력, 자살, 가족 해체, 학대 등의 사회적 문제의 발생을 증가시켰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미향 · 윤지영 · 이명숙, 2010),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 가족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문제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경제적 위기는 가족의 경제패턴 변화로 일상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 변화를 가져오는데, 위기 상황에서 소득이 낮은 가족일수록 말다툼이 증가하고 부부싸움이 잦아지는 등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송혜림 외, 2009). 또한 사회경제적 위기는 가족의 소득 감소, 부채 증가, 가장의 실직 등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가족 내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실제로 외환위기 상황에서 실업 중인

남편들의 권위 상실감이 컸으며 이는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임인숙, 2000). 오미옥 · 이진향(2019)은 저소득 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의 가구일수록 예상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가족관계에 긴장감을 가져오거나 원활한 가족기능 수행이 어려워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가족 갈등이 발생할 비율이 더욱 높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 가구의 가족관계를 강화하여 가족이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가족과 사회의 안녕을 위한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지표로는 소득기준과 박탈경험이 있는데(이승기, 2008), 소득은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반면 박탈은 현재 소득이나 재산보다도 당사자가 직접 경험하는 사회적 조건에 주목하는 개념이며 구체적인 사회적 불이익과 그로인한 고통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다(Brown & Madg(1982); Ringen(1988), 탁장환 · 박정민, 2017 '재인용').

소득을 기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인 '기준 중위소득'이 사용되는데,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의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김성욱 · 장동열, 2018).

또한 박탈을 기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하여서 한국의 경우는 Townsend(1979)의 박탈지표를 한국 상황에 적합하도록 문항을 재구성하여 사용하고 있다(김미곤 외, 2005). 빈곤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의 기준으로써 한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 식생활, 주거, 사회보험, 교육, 직업 등의 생활기준에 따른 박탈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물질적 빈곤 뿐 아니라 사회적 결핍과 상대적 결핍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해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Salmond et al.(2006), 강동훈 · 김윤태, 2018 '재인용').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은 가족이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우며 가족 간에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로, 다른

갈등요인보다 가정 내에 만연해 있으며 해결이 어려워 오랜 기간 동안 가족 간에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Dew & Dakin(2011); Papp et al.(2009), 박종옥, 2019 ‘재인용’). 의식주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박탈로 인해 가족의 욕구가 좌절되는 경험은 가족갈등 수준을 높이는데(Wadsworth & Compas, 2002),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은 가족에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을 더욱 가중시켜 가족 간 상호작용을 기능적이지 않게 하여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오미옥과 이진향(2019), 한세영과 한아름(2018), 엄순옥과 문재우(2017)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가족갈등을 높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당해 연도의 자료만을 사용하여 단선적인 인과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에 그치고 있어서,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가족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인과성이 시간의 변화에도 지속적인지에 대하여서는 살펴보기 어렵다. 한국사회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이동이 어려워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이상은, 2008)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의 지속성 대해서는 횡단적 접근보다 종단적 접근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ew & Dakin(2011)과 Papp et al.(2009)의 연구에서 제시한대로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으로 인한 갈등 원인은 가족 내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저소득 가구가 경험한 사회경제적 박탈의 경험이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 한다. 기존의 횡단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들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가족관계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정한 시점에 해당하는 현상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가족 내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갈등 요소인지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이전 시기의 5년간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가족갈등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일반적 변화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코로나 이후 심해지는 소득격차와 저소득가구의 사회경제적 박탈경험, 그리고 이로 인한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성과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모든 가족이 위기상황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예측하지 못한 위기 상황은 취약 계층의 가족에게 갈등을 유발하게 하여 위기가족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가족에게는 위기 상황에서 가족의 존재를 재발견하게 할 수 있다(박정윤, 2012). 위기 상황에서 가족 관계의 변화가 상위 소득층 가구에서는 긍정적으로 일어나는 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정한울 · 정원칠, 2009),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이 상위 소득층의 가구에게 가족 자원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저소득 가구는 위기가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전보다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가족갈등과 더불어 가족관계만족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종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사회경제적 박탈감으로 인한 가족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보고, 이와 관련하여 위기에 부딪힌 저소득 가구의 가족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회복하여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실천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저소득 가구의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 둘째, 저소득 가구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가족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 셋째, 저소득 가구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가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저소득 가구의 가족갈등과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

Sprey(1969)는 갈등상태를 둘 이상의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충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Sprey(1969)에 따르면 가족의 갈등은 완전한 해소나 종결이 불가능하고 가족 내에 잠재된 상태로 존재하며 기존의 갈등이나 경쟁구조가 재구성되는 것으로 보았고, 가족들이 이 갈등을 끊임없이 관리해나가야 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결국 갈등 그 자체가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 갈등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며 이를 어떻게 관리해나가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가족 내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심화될 경우 구성원간의 불화를 야기하며 이는 가족의 유지와 존속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폭력, 학대, 해체, 방임 등의 사회문제까지 발전할 수 있다(맹성준 · 김은경 · 한창근, 2009). 특히 위기상황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야기하는 가족의 병리현상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저소득가구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비규범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갈등을 관리해나가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정한울 · 정원칠, 2009).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문제로 유발된 가족갈등은 가구의 주요 수입원과 소비의 주체인 가구주 부부의 갈등에 대한 연구(박정민 · 박호준 · 오옥찬, 2017;

조준배, 2009; 현경자, 2008)가 주를 이룬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로 분류하고 두 집단의 부부 갈등을 비교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고민좌와 김혜숙(2014)은 저소득 가족이 일반 가구에 비하여 부부의 이혼비율이 높고 결혼유지기간이 짧으며, 신경증적 성향을 포괄하는 인성특성이 낮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소득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낮은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낮고 부부관계에서 문제 발생 비율이 높은 반면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부일수록 안정성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Amato et al.(2007), Conger, Conger & Martin(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달리 말해서 소득이 낮을수록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부부가 정서적 충동에 의해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할 수 있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로 현지영과 김경근(2015)은 가구 소득이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으면 자녀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를 달리 얘기하면 한국사회의 소득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계층 간 교육격차나 세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소득 수준에 따른 양육태도에 대하여 김선희(2014)는 가구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발된 갈등적 사건들을 많이 겪게 됨으로써 부부간의 갈등수준이 높아지고 유아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어머니가 유아의 자녀에게 보이는 온정적 반응이 낮으며 유아의 요구를 잘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기숙, 김순환과 김민정(2010)은 가구 소득에 따라 부모의 양육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저소득가구의 어머니일수록 지시적이며 통제가 강한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와 쌍방향적 소통을 지향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유아기 자녀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저소득 가구의 자녀가 낮은 사회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결국 유아기 자녀의 발달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또한 개인적 변인보다 가정 환경 변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다(이기숙 외, 2010).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혼의 안정성과 부부관계의 문제 발생정도에 차이가 있고 가구의 소득수준은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 자녀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단선적인 관계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서 저소득 가구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지속성 여부와 심화정도는 살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에서 통제할 수 없는 위기와 가족갈등 상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저소득 가구가 사회경제적 박탈을 경험할 경우 가족갈등과 가족관계 만족도가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종단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이로써 저소득 가구의 사회경제적 박탈감이 앞으로의 가족문제를 어떻게 야기할 것인지 예측하고, 가족 구성원들로 하여금 가족갈등을 원만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과 지지체계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제언해보고자 한다.

## 2.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가족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서는 Conger et al.(1994)이 제시한 ‘경제적 압박에 따른 가족 스트레스 모델’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가족이 겪는 박탈감은 남편과 아내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부부 갈등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경제적 변화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부부간에 직접적으로 갈등이 일어난다기 보다 남편과 아내 각자가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사회경제적 박탈감을 높게 느끼는 데 따라 개인적으로 불안해지면서 부부간의 관계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또한 부모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박탈감이 부모의 정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돈 문제를 둘러싼 부모 자녀사이의 적대적 소통을 통해 갈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소통방식은 자녀들에게도 이어져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증가시킨다(Conger et al., 1994). 즉 사회경제적 위기로 사회경제적 박탈감을 더욱 크게 느끼는 부부간의 갈등은 가족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흔들리게 할 수 있고 가족 관계에 문제를 일으켜 가족 내에 다양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가족 내의 주된 소득원인 가구주가 경험한 사회경제적 박탈의 경험은 그 스트레스의 강도가 다른 가족원에 비해 심각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가구주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지움으로써 무기력과 절망감에 처하게 하여 가족관계와 기능에 더욱 높은 수준의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Vosler(1996), 조준배, 2009 ‘재인용’).

박탈을 기준으로 한 빈곤의 지표는 생존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소득 기준의 빈곤을 넘어서서 다차원적인 결핍, 불이익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포함하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 박탈은 사회적, 정서적, 물질적인 면에서 다양한 대처자원의 결핍에 해당하는데, 이는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득 수준을 다양한 생활 형태로 반영하기 때문에, 물질적 빈곤 수준뿐만 아니라 기본생활의 다양한 상황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빈곤을 측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강동훈·김윤태, 2018). 즉 박탈의 개념은 한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식생활, 의료, 주거,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이나 사회적 관계 등 비물질적인 빈곤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사회경제적 박탈의 경험은 기대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가족이 가진 자원이 부족하다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

게 하고 가족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 내에서 쉽게 해결하기 어렵고 주기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Dew & Dakin(2011); Papp et al.(2009), 박종욱, 2019 '재인용'). 특히 저소득가구의 경우 사회경제적 박탈의 경험은 소득 격차를 더욱 심하게 느끼게 하고 가족이 빈곤을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게 하면서 가족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엄순옥과 문제우(2017)는 50대 이상의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박탈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박탈 경험이 많을수록 중·노년층의 우울 수준이 높고, 가족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경제적 박탈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갈등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박탈이 중·노년층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가족요소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왕원, 최윤과 김문조(2016)는 저소득 가구에게서 일어나는 사회경제적 박탈과 만연화된 우울, 가족갈등의 관계를 살피고 있다. 저소득 가구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은 가구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갈등을 일으킨다는 통상적인 담론에서 벗어나 배제와 박탈이 점점 다차원적이 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가족의 우울과 가족갈등이 가구의 근로 노력이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고 이는 박탈 조건을 강화하여 다시 사회경제적 박탈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저소득 가구의 박탈 경험은 개인의 우울과 가족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과 갈등이 높아지면 저소득 가구에 박탈 상황을 가중시켜 박탈감을 높이는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다. 김진이(2009)는 저소득 가구가 일반 가구에 비해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으로 압박감을 더 많이 겪으며,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은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부의 적대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부모역할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박탈경험이 가족갈등과 가족관계에 영향을 주지만, 이러한 사회경제적 박탈의 경험이 가족 내에서 시간의 흐름에도 해결되지 않고 갈등요소로 작용하는지, 그 영향력의 지속여부는 어느 정도인지 살피고 있지는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가구가 경험한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가족갈등과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사회경제적 박탈의 경험이 소득 수준이 낮은 가족 내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인 갈등원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저소득 가구의 심리적 박탈감으로 야기된 가족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가족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의 2015년 자료인 10차년도에서 2019년 자료인 14차년도까지 가구용, 가구원용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소득 가구의 5년간의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 변화를 파악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기본 조사는 초기에 5월에 시작되던 것을 2014년 9차 조사부터 2-3월에 시작하여 상반기에 조사를 마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전년도의 생활실태 등을 회상하는 데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여유진 외, 2019). 한국복지패널은 중위소득 60%이하를 저소득 가구로 정의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처음 조사시기인 2015년 10차년도에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 가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이 상승보다 하강 이동의 사회적 흐름을 보인다는 점과 계층 간의 이동이 쉽지 않은 사회적 현실 속에서 초기에 저소득층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그 이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이왕원 외, 2016). 가구주를 대상으로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성년자는 제외하며, 노년기의 저소득 가구주를 포함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의 기준을 20세-89세로 삼는다.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을 살펴보기 위해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이 없는 1인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초기 조사시기인 2015년 10차년도에서 분석한 대상자는 총 1,035명이었으나 사망이나 합가,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조사 거부 등의 이유로 2019년 14차까지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에 모두 응답한 대상자는 총 803명에 해당한다.

#### 2. 측정도구

##### 1) 가족갈등

가족갈등은 패널 자료 중에서 가족 간의 논쟁이 발생하는 정도와 갈등을 묻는 문항 5개를 사용한다. '가족 간 의견 충돌이 잦은 경우', '가족 간 서로 자주 비난하는 경우', '가족 간에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경우', '가족 간에 가끔 때리는 경우', '가족 간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5점 리커트척도로 되어있다. '가족 간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한다'는 문항에 대하여서는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간의 갈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10차년도에서 측정된 문항 신뢰도는 .801이다.

##### 2) 가족관계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는 동거 가구원과 1촌 이내의 혈족까지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가족 생활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

와의 관계', '자녀들의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해 묻는 4문항을 포함한다.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7점 리커트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0차년도에서 측정한 문항 신뢰도는 .801이다.

### 3) 사회경제적 박탈의 경험

가족이 겪은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은 초기 연도인 2015년 10차 자료에서 식생활 박탈, 주거, 의료, 사회보장, 사회적 박탈에 관련된 9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박탈의 경험이 가족 내에서 쉽게 해결될 수 없고 가족관계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는 요인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사지 못했던 경험', '2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 할 돈이 없어서 더 사지 못한 경험', '공과금을 내지 못해 전기나 전화, 수도가 끊긴 경험',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무돈 경험',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 간 경험',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한 보험급여자격정지 경험',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 존재여부' 문항이 이에 해당한다. 문항에 대하여서는 '예(1)'와 '아니오(2)'로 대답하게 되었으며,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회경제적 박탈을 경험한 가구에 해당한다.

### 4)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2015년 10차년도에 응답한 가구주의 성별과 연령대, 교육수준, 종교여부, 혼인상태, 직업유무를 분석하였다. 가구주의 성별이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를 관리하는 자원 활용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며, 종교 여부에 따라 가족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이혼, 사별, 별거 가구나 미혼모 혹은 미혼부, 한부모 가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직업유무 또한 가구소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분석방법

SPSS 26.0과 AMOS 26.0을 사용하여 자료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의 특성에 대하여 점검하기 위하여 SPSS 26.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였으며,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분포의 정규성을 지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2015년 10차에서 2019년 14차까지 5년에 걸쳐 저소득 가구의 사회경제적 박탈경험 여부와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 변화의 중단적 변화유형과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6.0을 활용하여 잠재성장곡선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ing: LGC)을 통해 검증하였다. 먼저 1단계 무조건부 모형(unconditional model)을 통해 5년 동안 반복해서 측정된 저소득 가구의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2단계 조건부 모형(conditional model)에서는 변화양상을 예측하는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을 예측변수로 설정하여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의 변화의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초기 10차년도의 연구대상자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N=803)			
Variables	n(%)	Variables	n(%)
성별	남성 590(73.5)	연령대	
		20 ~ 29세	2(0.2)
여성 213(26.5)		30 ~ 39세	9(1.1)
교육수준	중졸이하 531(66.1)	40 ~ 49세	77(9.6)
		50 ~ 59세	120(14.9)
		60 ~ 69세	135(16.8)
		70 ~ 79세	308(38.4)
		80 ~ 89세	152(18.9)
혼인상태	유배우 581(72.4)	종교유무	
		있음	408(50.8)
기타(사별, 이혼 등) 222(27.6)		없음	395(49.2)
직업유무	있음 414(51.6)		
		없음 389(48.9)	

연구대상자들의 73.5%가 남성, 26.5%는 여성으로 남성 가구의 비율이 대략 3/4에 해당한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전체의 8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배우자의 비율이 72.4%이다. 직업이 있는 경우는 51.6%, 없는 경우는 48.9%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며, 연령대는 70대가 38.4%로 가장 많다. 종교가 있는 비율은 50.8%, 종교가 없는 비율은 49.2%에 해당한다.

### 2.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변수들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평균과 표준편차, 첨도와 왜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변인들의 전반적 경향성

		(N=803)				
	시기	평균	표준편차	침도	왜도	
가족갈등	10차	1.69	0.57	3.00	1.43	
	11차	1.65	0.50	2.97	1.30	
	12차	1.66	0.54	2.93	1.28	
	13차	1.62	0.54	2.76	1.32	
	14차	1.59	0.55	3.12	1.41	
가족관계 만족도	10차	4.54	1.46	0.49	-0.38	
	11차	4.62	1.54	0.39	-0.35	
	12차	4.53	1.49	0.18	-0.41	
	13차	4.56	1.52	0.46	-0.26	
	14차	4.66	1.60	0.65	-0.22	

가족갈등의 평균은 10차에 1.69에서 11차에 1.65로 약간 감소하다가 13차에 1.66로 미세하게 증가하였고, 13차, 14차에 걸쳐 각각 1.62, 1.59로 감소하였다. 가족관계만족도는 10차에 4.54에서 11차에 4.62로 증가하였고, 12차에 4.53으로 떨어졌으며, 그 뒤 13차, 14차에 걸쳐서 각각 4.56, 4.66로 상승하였다.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의 왜도는 모두 절대값 3.0 미만이며, 침도는 10.0미만으로 다변량의 정규성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의 분석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

		(N=803)										
		1	2	3	4	5	6	7	8	9	10	11
가족갈등	1. 10차	-	.38"	.36"	.33"	.28"	-.30"	-.19"	-.17"	-.12"	-.11"	.16"
	2. 11차		-	.41"	.36"	.21"	-.26"	-.34"	-.23"	-.17"	-.16"	.10"
	3. 12차			-	.54"	.36"	-.20"	-.20"	-.27"	-.19"	-.16"	.09"
	4. 13차				-	.40"	-.18"	-.17"	-.20"	-.20"	-.13"	.07"
	5. 14차					-	-.17"	-.13"	-.06"	-.10"	-.17"	.09"
가족관계만족도	6. 10차					-	.70"	.69"	.61"	.60"	-.21"	
	7. 11차						-	.75"	.69"	.65"	-.16"	
	8. 12차							-	.79"	.69"	-.15"	
	9. 13차								-	.69"	-.12"	
	10. 14차									-	-.13"	
	11. 박탈유무											-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의 각각 연도별 측정 점수의 종단적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한데, 5개년 동안 한 시점에서 가족갈등이 높다면 다른 시점의 가족갈등이 높으며, 한 시점의 가족관계만족도와 다른 시점의 가족관계만족도 또한 서로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는 서로 부적인 상관을 보임으로써 가족갈등이 높을수록 가족관계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가족갈등, 가족관계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연구대상자들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의 종단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먼저 무조건부 모형(unconditional model)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에 대한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각각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무변화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의 궤적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모형으로, 성장요인 중에서 기울기 요인이 없는 모형이며(김수영·김민주·서영숙, 2020), 선형변화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관측변인으로 가는 경로계수에 요인부하량을 0, 1, 2, 3, 4로 고정하여 선형적인 변화를 가정한 모형이다. 먼저 가족갈등의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가족갈등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모형	X <sup>2</sup>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79.514	9	.904	.914	.099
선형변화모형	72.714	14	.949	.928	.072

〈표 4〉에 따르면 모형 적합도에 있어서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의 TLI, CFI가 모두 .90을 넘음으로써 두 모형의 TLI, CFI는 모두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김계수, 2009). 선형변화모형의 CFI는 .928이고 무변화모형의 CFI는 .914로, 둘의 차이는 .014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01보다 크기 때문에 이 두 모형은 서로 다른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무변화모형의 RMSEA는 .099이며 선형변화모형의 RMSEA는 .072인데, 본 연구에서는 두 모형 중에서 CFI와 RMSEA가 더 양호하다 판단되는 선형변화모형을 선택하였다. 가족갈등의 선형변화모형에 대한 가족갈등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가족갈등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평균	S.E.	C.R.	분산	S.E.	C.R.
초기값	1.691	.017	97.512***	.140	.012	11.344***
변화율	-.024	.006	-4.333***	.008	.001	5.805***
초기값-변화율	계수		S.E.	C.R.		
공분산	-.015		.003	-4.546***		

분석결과를 보면 연구대상자들의 가족갈등 초기값 평균이 1.691이고, 변화율은 -.024(p<.001)로, 저소득 가구의 가족갈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폭으로 감소하는 것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수치가 미비하여 갈등상태가 사실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족관계만족도의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가족관계만족도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모형	X <sup>2</sup>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76,620	9	.973	.976	.097
선형변화모형	92,448	14	.980	.972	.084

<표 6>에 따르면 모형 적합도에 있어서 선형변화모형의 TLI는 .980, CFI는 .972이고 무변화모형의 TLI는 .973, CFI는 .976으로, 두 모형 모두 적합한 범주라 할 수 있다. 두 모형의 CFI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무변화모형의 RMSEA는 .097이며 선형변화모형의 RMSEA는 .084인데 일반적으로 RMSEA가 .05이하이면 매우 적합하며 .08이하는 양호한 상태로 보고, .10까지 해석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좋지 않은 모형으로 본다(Browne & Cudeck, 1993). RMSEA의 비교로는 선형변화모형이 무변화 모형보다 약간 더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두 모형이 모두 .08-.10미만의 범주에 속해있고, 가족관계만족도의 선형변화모형의 기울기 C.R.이 1,609(p=.108)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변화 모형을 채택하였다. 무조건부 모형에 대한 가족관계만족도의 초기값은 다음 <표 7>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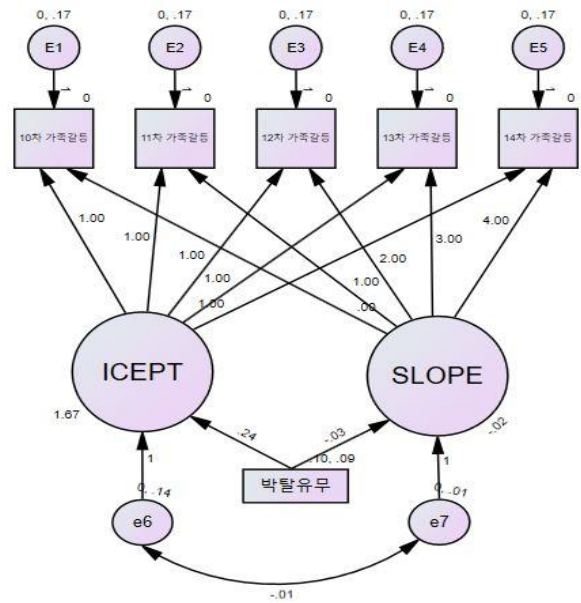
<표 7> 가족관계만족도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초기값 평균	4.538	4.620	4.530	4.562	4.657
S.E.	.055	.054	.051	.053	.057
C.R.	81.899***	85.860***	89.145***	85.739***	81.560***
분산	평균	S.E.		C.R.	
	1.618	.088		18.455***	

연구대상자들의 가족관계만족도 초기값은 10차에서 14차에 이르기까지 미약하게 하강과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선형변화에서의 기울기는 유의하지 않다.

#### 4.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에 따른 가족갈등의 변화

앞서 제시한 가족갈등의 무조건부 모형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가족갈등이 초기 2015년을 기준으로 매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갈등 초기값과 변화율에 초기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건부 모형(conditional model)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가족갈등의 조건부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적합도 지수는 <표 8>과 같다.



모형적합도 : X<sup>2</sup>=75,949, df=17, p=.000, TLI=.938, CFI=.929, RMSEA=.066

<그림 1>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가족갈등에 미치는 영향

<표 8> 가족갈등의 조건모형 적합도 지수

X <sup>2</sup>	df	TLI	CFI	RMSEA
75,949	17	.938	.929	.066

조건부모형에서 설정한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가족갈등의 예측요소로 적합한지 판단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가족갈등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내용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S.E.	C.R.
박탈유무 → 가족갈등 초기값	.239	.193	.057	4.220***
가족갈등 변화율	-.032	-.111	.018	-1.765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과 가족갈등의 초기값 간의 비표준화 회귀계수는 .239이며, C.R.값은 4.220으로, 이 값의 절대값이 1.96보다 크기 때문에 이는 사회경제적 박탈을 경험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가족갈등이 높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다(p<.001). 그러나 박탈 경험 유무와 기울기 간의 회귀계수는 -.032, C.R.값은 -1.765(p=.078)로, 이는 절대값이 1.96보다 작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족갈등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김계수, 2009). 이는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 여부가 무조건부 모형에서 확인한 저소득 가구의 가족갈등의 변화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박탈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와 변화율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초기에 높게 나타난 박탈 유형 경험 가구의



가족갈등이 미경험 가구의 가족갈등에 비해 시간의 흐름에도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5.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에 따른 가족관계만족도의 변화

연구대상자들의 가족관계만족도에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건부 모형(conditional model)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연구문제 1에서 무변화모형을 채택했기 때문에, 가족관계만족도의 조건부모형에서는 초기값의 추정치만 살펴보았다. 가족관계만족도의 조건부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10>과 같다.

<표 10> 가족관계만족도의 조건모형 적합도 지수

$\chi^2$	df	TLI	CFI	RMSEA
95.687	17	.975	.972	.076

조건부모형에서 설정한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가족관계만족도의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은 <표 11>과 같다.

<표 11>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가족관계만족도의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

내용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S.E.	C.R.
박탈경험 → 가족관계만족도 초기값	-.938	-.223	.162	-5.796***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과 가족관계만족도의 초기값 간의 비표준화 회귀계수는 -.938이며, C.R.값은 -5.796으로, 이 값의 절대값이 1.96보다 크기 때문에 이는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즉 사회경제적 박탈을 경험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가족관계만족도가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2015년 10차에서 2019년 14차까지 5개년 자료를 중심으로 저소득가구의 주된 가족관계요인인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의 종단적 변화와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가족관계요인의 변화율과 예측변수의 종단적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ing)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갈등의 변화율에 대한 무조건부 모형을 분석한 결과, 초기 연도인 2015년에 연구대상자의 가족갈등은 5점 만점 중 1.69이었고, 이후 소폭으로 상승과 하강을 보였다. 무조건부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 가구의 가족갈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0.024로 변화하는 것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사실상 그 수치가 미비하여 가족갈등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관계만족도는 7점 만점 중에서 초기 연도에 평균 4.538였고 그 이후 소폭 상승과 하강을 보였으며 기울기는 유의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가족갈등이 일반가구에 비해 높다고 하였으며(김유경 외, 2013; 여진주, 2008; 오미옥·이진향, 2009), 저소득 가구의 가족관계만족도가 일반가구에 비해 낮다고 하였는데(고민좌·김혜숙, 2014; 현지영·김경근, 2015), 본 연구에서는 일반가구에 비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저소득 가구의 갈등상태와 가족관계만족도가 시간의 흐름에도 눈에 띄게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고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갈등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그만큼 가족관계에서의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의미인데, 이는 갈등상태가 유지되던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기 사건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저소득 가구가 위기가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저소득 가구의 가족갈등에 미치는 변화 궤적을 살펴보기 위하여 두 가족관계요인에 대하여 각각 조건부 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가족갈등의 조건부모형을 분석한 결과, 박탈을 경험한 저소득 가구가 미경험의 저소득 가구보다 초기치에 있어서 갈등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엄순옥·문재우, 2017; 오미옥·이진향, 2019; 한세영·한아름, 201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박탈 미경험 가구에 비해 초기치가 높게 나타난 박탈 경험 가구의 가족갈등의 기울기는 시간의 흐름에도 의미 있게 변화하지 않는데, 이를 달리 해석하면 초기에 높게 나타난 박탈 경험 가구의 가족갈등이 미경험 가구의 가족갈등에 비해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사회경제적 박탈로 인한 가족갈등은 가족 내에서 통제하기 어렵고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갈등을 일으킨다는 Dew & Dakin(2011), Papp et al.(2009), 박종옥(2019)의 연구결과에 상응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Conger et al.(1994)의 가족스트레스 모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인 박탈의 경험은 가족원에게 상대적 빈곤감을 높여서 가족의 불안이 높아지고 관계상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사회경제적 박탈경험이 저소득가구의 가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서는 가족관계만족도의 무조건부 모형 중 선행변화모형에서 기울기가 유의하지 않아 무변화모형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박탈경험 유무에 따른 가족관계만족도의 조건부 모형에서는 초기치의 추정치만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의 저소득 가구는

미경험 저소득 가구에 비하여 가족관계만족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김진이(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와 위의 사회경제적 박탈경험이 가족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박탈 미경험 저소득 가구에 비해 초기치가 낮게 나타난 박탈 유형별 저소득 가구의 가족관계만족도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율을 추정해 보았을 때, 박탈 미경험 가구보다 유형별 가구의 가족관계만족도가 낮은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저소득 가구가 사회경제적 박탈을 경험할 경우 가족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정서적 충동에 의해 반응할 가능성을 높여 갈등이 높고 악화된 관계가 유지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은 주로 주거지원, 의료지원, 세금감면, 난방비 등 에너지 지원, 양육지원 등 저소득 가구의 박탈 경험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과 생계급여 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체계 확대와 더불어 가족 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 가구의 사회경제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 식생활,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보험 등 각 분야의 사회보장체계와 소득 보장정책을 확대해야 하며, 경제적 문제로 야기되는 가족갈등과 가족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가족들이 유효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게 하고, 가족 내 유대감과 결속력 강화를 통해서 물질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물질·인적 가정관리 전략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탈빈곤이 어려운 현대사회에서 소득지위로 인한 저소득 가구주의 심리적 박탈감은 가족 내 관계갈등을 만성화시키고 가족을 해체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민좌·김혜숙, 2014; 도미향 외, 2010). 따라서 현재 취약가족, 위기가족을 지원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저소득 가구의 가족이 가족갈등을 가족들 스스로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 가구에게 상대적 빈곤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 여부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동태적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코로나 이전 시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적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소득격차가 심해지는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가구의 경제적 자원의 부족이 가족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과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지닌다. 2020년 3분기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로 인해 저

소득층 근로소득이 고소득층에 비해 큰 비중으로 줄어들었고 보고되고 있는데(KBS News, 2020),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상황에서 저소득 가구의 박탈 경험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저소득 가구의 박탈경험이 두 가족관계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은 본 연구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본 연구에서 5년 동안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에 모두 응답한 연구대상자 수가 많지 않고, 특히 사회경제적 박탈을 경험한 가구 수가 적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저소득 가구주의 73.5%가 남성이며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전체 연령 중 70대에 38.4%가 밀집되어 있다. 노년기 남성의 경우 노년기 여성에 비해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르면(최인희 외, 2014), 남성의 경우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를 지각하는 것이 여성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한 연구이기 때문에, 2차 자료가 갖는 한계도 존재한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빈곤층의 가구형태와 계층의 생활 실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료로(여유진 외, 2019) 본 연구의 자료수집 목적과 분석 방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성화된 경제적 불안정성이 가족에게 주는 영향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코로나 사태 이후의 저소득 가구의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예측하지 못한 외부적인 위기상황에 부딪혔을 때 저소득 가구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위기 상황에서 갈등을 심화시키고 가족관계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성 가구주가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별을 달리하여 여성이 지각한 가족 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며, 가구주의 근로 여부에 따라라도 가족관계가 달라질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저소득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가족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는 살피고 있지 못하며, 가족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로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 하나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를 비교한 연구와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가족관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저소득 가구의 가족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저소득 가구의 갈등을 낮추고 가족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강동훈·김윤태(2018).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6가지 박탈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8(2), 1-20.
- 2) 고민좌·김혜숙(2014). 저소득 기혼남녀의 인성특성과 부부갈등 정도. 한국가족복지학, 19(3), 489-508.
- 3) 김계수(2009). (AMOS/LISREL) 잠재성장모델링과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서울: 한나래.
- 4) 김미곤·여유진·이태진·양시현·최현수(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층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5) 김성옥·장동열(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선과 수급자 선정기준 간 재산반영 여부에 따른 제도효과 모의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3), 267-291.
- 6) 김선희(2014).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부정적 또래놀이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영유아교육학회, 5(18), 317-338.
- 7) 김수영·김민주·서영숙(2020). 무변화 모형의 실제적 정의. 교육평가연구, 33(3), 681-705.
- 8) 김영란(2020). 코로나19 시기 가족생활과 가족 정책 의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 9) 김유경·이진숙·이재림·김가희(2013). 가족의 갈등과 대응방안 연구-가족관계 갈등과 가족기능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0) 김진이(2009). 경제적 압박감이 빈곤아동의 학교생활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가족 위험변인과 부정적 부모역할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8, 7-43.
- 11) 도미향·윤지영·이명숙(2010).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가족복지정책. 한국가족복지학, 15(1), 63-81.
- 12) 류종훈(2004). 쉽게 쓴 가족치료와 가정상담. 동인.
- 13) 맹성준·김은경·한창근(2009). 자산이 가족갈등수준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50(2), 179-206.
- 14) 박정민·박호준·오욱찬(2017). 가계부채가 부부폭력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연구, 48(4), 33-57.
- 15) 박정윤(2012). 위기가족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7(4), 35-62.
- 16) 박종옥(2019).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집단의 가족생활만족도와 영향요인. Financial Planning Review, 12(1), 57-86.
- 17)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2020). 2020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통합본.
- 18) 송혜림·성미애·박정윤·진미정(2009). 경제적 위기 상황과 가족정책의 대응방안. 보건복지포럼, 151(0), 53-6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 서울신문(2020.7.24.). 외환위기 못잖은 코로나 경제패닉.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24001056> 에서 2020. 12 인출
- 20) 엄순옥·문재우(2017). 중·노년층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가족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25(0), 53-76.
- 21) 여유진·오미애·이병재·최준영·김근해·김선·한겨래·신재동·박나영·송지은·정다운·이봉주·강상경·박정민·안상훈·정원오·백승호·김효선·신유미·김정옥(2019). 2019년 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2) 여진주(2008). 아동학대 발생요인에 대한 생태학적 분석-경상북도 동부권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사회연구, 28(1), 3-26.
- 23) 오미옥·이진향(2019). 저소득 가구의 가족갈등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11), 993-1003.
- 24) 이기숙·김순환·김민정(2010). 유아의 성, 연령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어머니 양육유형과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4(30), 187-212.
- 25) 이상은(2008). 한국에서의 빈곤의 세대 간 이진. 한국사회복지학, 60(2), 53-76.
- 26) 이승기(2008). 객관적 빈곤가구와 주관적 빈곤가구의 일치성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4(3), 99-116.
- 27) 이왕원·최율·김문조(2016). 한국 저소득층 가구의 빈곤화 과정에 관한 연구-자기회귀교차지연(ARCL)모형을 통한 다중박탈양상의 종단적 분석. 가족과 문화, 28(1), 162-206.
- 28) 임인숙(2000). 경제위기가 남편의 권위상실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회, 34(WIN), 1105-1127.
- 29) 정한울·정원철(2009). 여론을 통해 본 경제위기 시대의 가족. EAI 오피니언 리뷰, 1-28.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 30) 조준배(2009). 경제적 스트레스요인이 부부갈등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자아존중감과 자기생활만족도 그리고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0(27), 153-174.
- 31) 최인희·홍승아·김주현·정다운(2014).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가족생활 현황과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2014), 1-334.
- 32) 탁장한·박정민(2017). 과중채무자의 사회경제적 박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8(2), 173-201.
- 33) 한세영·한아름(2018). 경제적 박탈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불안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9(4), 55-65.
- 34) 현경자(2008). 저소득층 부부들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결혼결과: 탄력적 대응을 돕는 기혼자의 자기해석.

-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3), 49-79.
- 35) 현지영 · 김경근(201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 및 학교 내 사회자본, 학업성취 간 구조적 관계 분석: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25), 125-154.
- 36) KBS news (2020.11.19.). 코로나가 벌려놓은 소득격차 저소득층만 소득 감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2409&ref=A> 2021. 01 인출.
- 37) Amato, P. R., Booth, A., Johnson, D. R., Johnson, D. R., & Rogers, S. J.(2007). *Alone together: How marriage in America is changing*. Harvard University Press.
- 38) Brown, M. & Madge, N.(1982). *Despite the Welfare State: a report on the SSRC/DHSS programme of research into transmitted deprivation*. Heinemann Educational Publishers.
- 39) Browne, M. W.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 Sage.
- 40) Conger, R. D., Ge, X.-J. & Lorenz, F. O. (1994). Economic stress and marital relations. In R. D. Conger, G. H. Elder, Jr., F. O. Lorenz, R. L. Simons, & L. B. Whitbeck, *Social institutions and social change. Families in troubled times: Adapting to change in rural America*, 187-203. Aldine de Gruyter.
- 41) Conger, Xiaojia Ge, Glen H. Elder, Jr., Frederick O. Lorenz & Ronald L. Simons(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2), 541-561.
- 42) Conger, R. D., Conger, K. J. & Martin, M. J.(2010). Socioeconomic status, family processes, and individual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3), 685-704.
- 43) Dew, J. & Dakin, J.(2011). Financial disagreements and marital conflict tactics. *Journal of Financial Therapy*, 2(1).
- 44) Jetse Sprey(1969). The family as a system in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1(4), 699-706.
- 45) Papp, L. M., Cummings, E. M. & Goeke-Morey, M. C.(2009). For richer, for poorer: Money as a topic of marital conflict in the home. *Family relations*, 58(1), 91-103.
- 46) Ringen, S.(1988). Direct and indirect measures of poverty. *Journal of social policy*, 17(3), 351-365.
- 47) Salmond, C., Crampton, P., King, P. & Waldegrave, C. (2006). NZiDep: a New Zealand index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for individuals. *Social science & medicine*, 62(6), 1474-1485.
- 48) Townsend, P.(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s of liv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49) Vosler, N. R.(1996). *New approaches to family practice (Vol. 31)*. Sage.
- 50) Wadsworth, M. E. & Compas, B. E. (2002). Coping with family conflict and economic strain: The adolescent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2(2), 243-274.

- 투 고 일 : 2021년 02월 22일
- 심 사 일 : 2021년 04월 07일
- 계 재 확정 일 : 2021년 05월 07일